

2017. 09. 28.(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I·SEOUL·U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국장	정소익	2096-0108 010-8578-0435
홍보 담당자	김나연	2096-0156 010-2035-1447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6쪽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프로젝트 ‘똑똑한 보행도시’

추석연휴 무료개방... 똑똑한 보행도시에서 즐겁게 걸어볼까?

- 포켓몬고 보다 재밌는 ‘소리숲길 게임’, 7개 장소 7개 색깔 뮤직 감상 ‘뮤직시티’...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9.2~11.5) 돈의문박물관마을, DDP 등

- 익선동, 만리재로 등 일명 ‘걷기 좋은 거리’들이 대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시끄러운 서울 시내에서 한적한 풍경을 감상하며 걷기 좋은 거리를 찾고, 아는 사람만 알던 작은 골목길들이 데이트족의 대표 코스가 된 것은 하나의 ‘문화’로 발전한 도시 속 보행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
- 이처럼 단순히 목적지로의 이동을 위한 보행이 아닌 문화와 예술을 통한 걷기의 즐거움을 발견해보는 <똑똑한 보행도시> 프로젝트가 11월 5일(일)까지 DDP, 돈의문박물관마을 등 서울 도심 속 곳곳에서 펼쳐진다.
-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약칭 서울비엔날레)의 현장프로젝트인 ‘똑똑한 보행도시’는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이동 행위로서의 보행의 필요성이 점차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 감각 시대에서 보행의 동기를 알아보고 미래 도시에서의 보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는 프로젝트다.

- 단순히 보기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우리가 걷고 생활하는 서울 도심 거리가 프로젝트 현장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직접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보행을 체험해보면서 도시에서 이동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
-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서울비엔날레 주 전시장인 돈의문박물관마을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시민에게 무료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 평소보다 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서울 도심 속에서 똑똑하게 걸으며 미래 보행 도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똑똑한 보행도시’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소리숲길] 포켓몬 고 보다 재밌는 ‘소리숲길’로 떠나보자. 스마트폰에서 소리숲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DDP, 세운상가 등 서울비엔날레 행사장 주위에서 나만의 나무를 심고 가상의 소리숲길을 만들어본다.
 - 소리숲길은 보행의 현장에 설치된 센서와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행자가 지정된 도시의 구간에서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포켓몬 고 게임에 다양한 포켓몬들이 존재하듯 소리숲길에는 도시의 환경을 수치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라는 가상의 식물들이 존재한다. 포켓몬볼을 쥘 것처럼 스마트폰 증강현실을 통해 보이는 소리숲길에서 열매를 수집해 심으면 나만의 나무를 키울 수 있다.
 - 소리숲길 내 총 20개의 가상 식물은 빛, 와이파이, 소음, GPS 등 도시 환경에 따라 씨앗부터 자라나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며, 생을 다하면 죽기도 한다. 따라서 참여자는 자신이 걷는 보행 환경에 최적화된 각각의 식물을 키울 수 있고, 각 식물은 각기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앱을 켜고 움직일 때 마다 속도, 거리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듣는 재미도 선사한다.

- 소리숲길의 기획 및 음악 작업을 총괄한 이우준 (Kayip)은 영국 현대음악 지원협회인 ‘Sound and Music’ 소속 작곡가로 선정되어 활동한 바 있으며, 영화 ‘공공의 적’, 연극 ‘비포애프터’ 등과 가수 이승열, 윤상, 클래지콰이 등 음반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는 떠오르는 젊은 작곡가 중 하나이다.

□ [뮤직시티] 걷기 좋은 거리에서 음악은 빠질 수 없는 친구가 된다. 뮤직시티는 음악으로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이다.

- 스마트폰의 뮤직시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DDP, 세운상가, 낙산공원, 서울로 등 7개의 장소에서 그 장소만의 특별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 한국과 영국의 7명의 뮤지션들이 서울을 직접 탐험하고 각각의 장소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DDP에서는 영국 싱어송라이터 ‘한나 필’의 〈흐름을 따라가다 (Follow the Flow)〉을 들을 수 있다.

□ [뇌파산책]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걷기 좋은 길일까? 뇌파산책 프로젝트에서는 보행자가 주변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를 뇌파로 보행 환경을 분석하고 다양한 보행 체험 길을 제안한다.

- 참여자는 뇌파감지헤드셋(EEG·electroencephalography)을 쓰고 행사장 일대의 보행코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보행 환경변화에 따른 뇌파 감지 결과 데이터를 모아 분석한다. 5개의 현장 코스(DDP, 서울성곽길, 훈련원공원, 청계청, 세운상가)에서 참여할 수 있다.

□ 이밖에도 예술가들과 함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도시게임을 구현하는 [플레이어블 시티],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그리고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커넥티드 시티 페스티벌](10월 27일(금)~29일(토)), 서울의 대표 공유수단인 따릉이를 빌려 서울도심 곳곳에

서 펼쳐지는 서울비엔날레 현장을 돌아보는 등 보행도시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 돼 있다.

□ 특히 추석 연휴 주말인 1일(일)과 8일(일)에는 큐레이터와 함께 서울비엔날레 주요 현장을 걸으면서 똑똑한 보행도시의 프로젝트를 직접 체험하는 ‘똑똑한 보행도시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보행놀이터’가 열린다.

○ 먼저 10월 1일(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똑똑한 보행도시 큐레이터인 양수인 건축가와 함께 종묘에서 [소리숲길] 게임을 진행한다. DDP에서는 [뇌파산책 워크숍]을 시간대별로 진행하며, 각 프로그램은 서울비엔날레 공식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받는다.

○ 8일(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뇌파산책 워크숍]이 진행되며, 이와 함께 DDP에서는 [소리숲길]과 [뮤직시티] 프로젝트를 체험할 수 있다.

□ 한편, 행사 기간 동안 행사 리플렛을 지참하고 프로그램별 스탬프(스티커)를 받는 참가자에게는 똑똑한 보행도시 한정 기념품을 증정한다. 10월 28-29일에는 4개의 서울비엔날레 현장 인근 정류소에서 따릉이를 빌리거나 반납하는 참가자 역시 보행놀이터의 이벤트 맵에 스탬프를 찍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 똑똑한 보행도시의 총괄 큐레이터인 양수인 소장은 “교통수단, 스마트 모빌리티의 발전으로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보행의 필요성은 점차 불필요하게 되고 있다. 똑똑한 보행도시 프로젝트는 ‘그렇다면 도시에서 왜 걸어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보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보는 프로젝트이다”면서 “소리숲길, 뇌파산책 등 다채로운 IT 기술이 결합된 미래지향적 보행 체험으로 시민들이 보행도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서울특별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는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9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50여 개 도시, 120여 개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돈의문박물관마을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 서울비엔날레에서는 똑똑한 보행도시 외에도 생산도시, 식량도시 등의 다채로운 현장프로젝트가 진행된다.
 - 생산도시는 〈사물의 구조〉, 〈신제조업 워크숍〉, 〈프로젝트 서울어패럴〉로 구성된다. 서울의 구도심인 창신동,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 생산 현장에서 다양한 전시와 워크숍이 진행돼 서울 도심 제조업 현장의 다양한 현상을 재조명하고 도시생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해석하는 현장 프로젝트이다.
 - 식량도시는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가는 식량 문제를 음식과 식음료, 도시농업 등 친숙한 주제로 체험해보는 프로젝트로 서울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비엔날레 카페, 비엔날레 식당 등이 마련된다.

- 서울비엔날레 프로그램별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비엔날레 홈페이지(www.seoulbiennale.org)에서 확인하거나 서울비엔날레 사무국(☎ 02-2096-010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진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똑똑한 보행도시> 프로젝트 관련 이미지)



소리숲길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만의 나무를 심고 가상의
소리숲을 만들어 보는 게임

소리숲길

9.2.-11.5.



매주 지정된 비엔날레 현장에서
뇌파를 측정하여 보행 환경을
분석하는 프로젝트

뇌파산책

9.3.-11.5. (매주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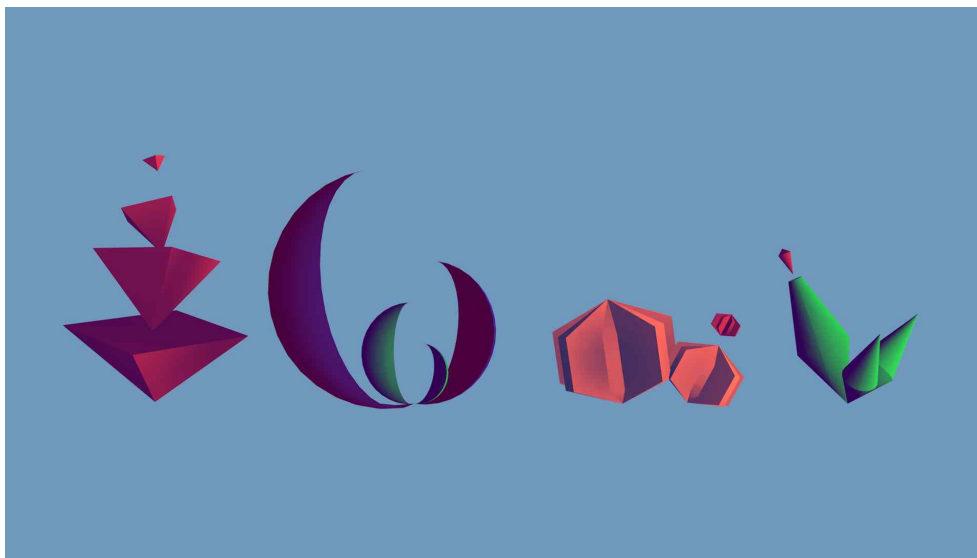


7개의 장소별로 한국, 영국의
뮤지션들이 각각 작곡한 특별한
음악을 듣는 프로젝트

뮤직시티

10.5.-11.5.

① 추석연휴 '똑똑한 보행도시' 참여 프로그램 안내지도



① 소리숲길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가상의 식물들

사진출처: 서울디자인재단